

# OPEC 감시위 평가 및 시장전망



具 滋 權  
〈석유개발공사 조사부 계장〉

**지난** 2월 12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OPEC(석유수출  
국기구) 감시위는 우여곡절끝에 현 산유량에  
서 5% 수준의 감산에 합의하고 2월 15일 폐막되었다. 이번  
OPEC 감시위는 형식상으로는 작년 11월 90차 OPEC 총회  
에서 위임한 『금년 2/4분기 OPEC 쿼타 결정』을 위한 것이  
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작년 12월 이래 급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유가의 추가하락을 막기 위한 OPEC의 비상대책회의  
성격이었으며, 향후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주요변수로 주목  
받았었다.

금년초 석유시장은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재고적체가  
심화되는 등 수급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유가도 작년말의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더구나 2/4 분기는 비수기로  
수요가 대폭 감소할 뿐 아니라, 이라크·쿠웨이트 공급증대  
로 공급은 오히려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대로 간  
다면 과잉공급과 유가폭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OPEC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얼마나 실효성  
있는 감산대책을 수립하는가 하는 것이 이번 감시위의 관건  
이었다.

이번 OPEC 감시위에서는 OPEC 생산상한 및 국가별 쿼  
타배분에 관한 합의내용이 공동성명(Communique) 형식으  
로 발표되었지만, OPEC내 주요산유국인 사우디와 이란은  
합의내용에 공식적 유보의사(Reservation)를 표명했고 대  
부분 산유국들도 합의내용에 만족하지 못했다. 감시위 종료  
직후 국제유가는 배럴당 0.6~1.0달러 즉각 하락함으로  
써 감시위결과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시사했었  
으나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여 감시위前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분석가들은 이번 감시위합의를 실패로 해석하는  
반면, 상당히 긍정적인 합의로 평가하는 견해도 상존하고

있다.

이번 OPEC 감시위 결과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향후 시장  
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OPEC 감시위 합의내용〉

1. OPEC 생산상한은 2,298.2萬 b/d로 설정하고  
국가별 쿼타를 설정  
※사우디·이란 유보의사 표명
2. 새로운 생산상한 및 국별 쿼타는 즉각시행
3. 쿼타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2개의 지역별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
4. 4월 24일 감시위를 다시 소집키로 결정  
(다만, 이라크 수출재개가 허용될 경우 즉각  
감시위 소집)

이번 감시위에서 나타난 특징은 걸프전후 강화된 OPEC  
내 사우디아라비아의 위상을 들 수 있다. 4일동안 계속된  
OPEC 감시위 진행양상은 사우디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회  
원국그룹이 협상하여 마련한 案을 사우디에게 결재(?)받  
는 형식이었다. 생산상한, 감산방법등 모든 주요사안의 결  
정은 사우디의 의도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사우디  
의 이러한 영향력강화는 향후 OPEC 의사결정 및 시장동향  
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OPEC 생산상한 설정은 여타 12개국 그룹이 2,250  
萬 b/d로 잠정 합의했었으나, 사우디의 주장대로 2,298萬  
b/d로 결정되었다. 이것은 OPEC 사무국이 추정한 2/4분기  
對OPEC 수요(2,277萬 b/d)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서 현  
재의 OPEC 산유량(2,430萬 b/d) 대비 5%의 감산에 해당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라크·쿠웨이트 쿼타가 각각 50.5

萬 b/d, 81.2萬 b/d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라크·쿠웨이트의 현 산유량(100萬 b/d)보다 30萬 b/d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미 생산 쿼타분은 사우디가 실질적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으로 해석된다. 어쨌든 감산문제에 대해서는 전 회원국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으며 회원국간의 견해차도 크지 않아서 큰 논란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국가별 쿼타배분문제는 산유국들간의 이해가 상충되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감시위 합의는 '90년 7월 이래 최초의 실질적 쿼타제도 복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번 감시위에서의 쿼타배분사태가 향후 쿼타문제 논의시『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원국 각자가 자국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합의에 난관을 겪었다. 사우디그룹은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한 국가별 비율감산을 주장한 반면 다른 회원국그룹은 '90년 9월 쿼타체제를 기준으로 걸프사태 외중에서 크게 증산한 사우디, UAE 등이 대폭 감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그러나 결국 사우디그룹의 의도에 가까운 최대산유량기준 국가별 비율감산방법이 채택되었다. 이번 감시위에서 기존 쿼타가 아닌 생산능력(최대산유량) 기준으로 쿼타가 배분되었던 것은 사우디의 오랜 주장이 실현된 것으로 향후 이라크·쿠웨이트 공급 증대분에 대한 추가감산 논의에도 기준으로 채택될 공산이 크다.

한편 사우디는 자국 주장이 대폭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정쿼타(788.7萬 b/d)에 관계없이 800萬 b/d 생산을 고수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어쨌든 '90년 7월 이후 명목상 쿼타제도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구속력있는 실질적 쿼타제도로 복귀한 것은 이번 감시위의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OPEC는 이번 감시위 합의사항을 2/4분기가 시작되는 4월초부터가 아니라 즉각 시행토록 결정했다. 이것은 한편으로 OPEC 산유국들이 현재의 시장약세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시장대응에 대한 OPEC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유국들의 기존 고객과의 계약관계 때문에 감산효과가 즉각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OPEC는 이번 감시위에서 쿼타준수 및 생산감시를 위해서 대서양 회원국그룹과 페만 산유국그룹등 2개 지역별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함으로써 감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OPEC의 진일보된 노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생산감시제도는 전에도 수차례 시행된 바 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OPEC의 감산여부는 실제 OPEC 산유국들의 자발적인 쿼타준수의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시위에서는 4월 24일 감시위를 다시 개최키로 결정함으로써 이번 감산합의가 실효(유가하락방

지)를 거두지 못할 경우 두달후 차기 감시위에서 다시 논의할 단서를 마련했다. 이라크 쿼타는 현재의 산유량만을 반영하고 UN의 이라크 수출재개가 허용될 시는 추가감산을 위한 감시위를 즉각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그렇다면 이번 OPEC 감시위결과는 향후 석유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번 감시위 합의내용이 현재의 수급약세상황을 급반전시켜 유가회복을 가져올 수준은 못된다는 것이 시장분석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이번 OPEC 감시위 감산합의로 우려되던 유가폭락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수급 및 유가상황을 2/4분기까지 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합의에 유보의사를 밝힌 사우디, 이란의 경우를 들어 이번 합의 실패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란의 경우 유가회복을 위해서는 생산상한이 더 낮아야 한다는 불만에 불과하며 쿼타를 위반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아니다. 전통적 고유가 강경론자이며 전후 막대한 복구자금이 필요한 이란이 쿼타를 위반하여 증산함으로써 유가폭락을 선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면 사우디의 경우는 배정쿼타(788.7萬 b/d)보다 불과 11萬 b/d 많은 800萬 b/d 생산고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11萬 b/d라는 초과물량은 시장에 큰 의미가 없다.

사우디아라비아가 800萬 b/d 고수를 주장하는 것은 향후 쿼타논의시 우선고지를 점령하려는 포석용으로 해석된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사우디는 감산을 준수할 징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사우디의 시장목표가 저유가 시장쇄어확대이며 美國 및 세계 경제회복에 대한 기여를 위한 유가안정이라는 하지만 이것은 유가급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유가상한의 의미이지 유가폭락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사우디 주도로 유가폭락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랍권에서의 사우디 위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다국적군 전비보상 등으로 어려운 재정사정에도 치명적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감산대상국인 사우디, 이란등의 감산준수 가능성은 높다. 결국 이번 감산합의는 시간이 흐를수록 실효성이 떨어지긴 하겠으나 OPEC 산유량이 2,300萬 b/d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대체로 준수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라크 공급이 재개되지 않는 한 2/4분기 비수기 도래 및 쿠웨이트 공급증대에도 불구하고, 2/4분기까지 시장수급은 현재의 약세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해도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2개월후 및 3개월후 OPEC 감시위 및 OPEC 총회가 각각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심리적으 유가급락을 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4분기까지 油價는 현재 수준(두바이 15~16 \$/B)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